시 구판순

죽녹원에 가고파라

사운사운 노랫소리
관객들 불러 모아
차분히 가슴속에
음이온 담아 주는 자리네.

마디마디 잎 새마다
온통 곧은 마음
하늘을 향하는 모습
닮고 싶어 죽녹원에 가고 싶네.

초록 노적을 닮은
깐깐한 무리
창고는 비어 있어도
가득 차 있어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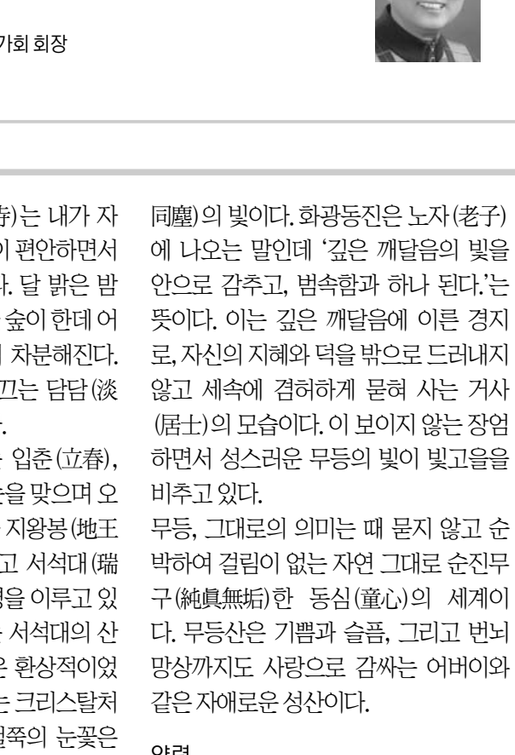
군살 없는 죽녹원
삭은 내음 보이지 않아
청빈한 선비들의
나눔의 자리 마다하지 않겠네.

약력

▲'부산 문예시대' 시, '대한문학' 수필 등단
▲광주전남여성백일장 산문부분 우수상 수상,광주시인협회 백일장 운문부분 우수상 수상,광주시인협회 생태환경작품상, 광주시문학상 수상
▲징검다리수필 회장, 화순문학 회장 역임
▲시집 : '꽃들의 이야기' 외 다수

시 이삼문

길



걷다가 달리다가
돌아보는 길

내가 가는 길 나를 닮고
네가 가는 길 너를 닮는다

그래도
동행 길은 인연의 길

가도 가도
백년을 가도
더 가야 할 사랑의 길

오늘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약력

▲문학예술 시 등단
▲광주, 전남 문인협회 이사
▲곡성문인협회 회장
▲광주·전남 문학예술작가회 회장
▲전남문학상 수상

시 정선수

존재의 사유
(存齋) (思惟)

존재(存齋) 삼벽의 땅
목은(牧隱) 낙토의 땅
충무공(忠武公) 득량만
난세에도 넉넉하였던 학문의 세계
장흥벌 황금 들판을 훔쳐본 선비의
원대한 지략이 풍요롭다.
실학의 거목 존재 위백규 선생
뿌리 깊은 고풍의 생가 문전의 모과
효심의 내림 101세 모친을 모신 터
가풍이 장흥벌스럽다.
장수 가의 해맑은 천연수
천해의 어울림 계동리 위씨 집성촌
文林의 義鄕 예스런 장엄한 기풍에
함성의 대숲 천관산을 품는 날
명산의 정기 천관사 방촌리 계동
나시어 벼슬도 뿌리친 어명 올곧은
선비의 우직함 후학 양성과
실학문의 선구자 삶이셨다.
세상 보기를 직시함에 우러러
존재의 개혁 정신은 시류의 혼탁한
사회제도 바른 깨우침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저 높은 천관산
기상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학문이
활활 타올랐을 기백을 본다.
시련의 세월은 가도 학문은 남는 것
가문의 변함 없는 뿌리 그 훈훈함이
찬란한 빛으로 넘쳐나 길이 남는다.

*전남 장흥군 방촌리 계동마을 실학의 선구자 존재 위백규(1727~1798) 선생 가택 기행

약력

▲한국문협, 국제Pen, 광주시협, 전남문협 회원
▲문학춘추, 시향, 서은, 자유문예, 문학의 뜰 회원
▲전남시협 부회장, 광주문협 부회장
▲저서 : '백리섬 섬길', '심상 수채화' 외 4권
▲수상 : 영·호남문학상 수상

수필

윤소천

빛

화광동진의 무등산
(和光同塵) (無等山)

고을 광주(光州)를 안고 있는 무등산은 인근 담양 나주 화순 장성, 어디에서 보아도 자애롭고 든든한 모습이다. 무등(無等)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세상 만물이 평등하다는 하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부드러운 무등의 능선은 푸른 하늘에 욕심 없이 그어놓은 한 가닥 선(線)이다.

나는 무등산 아래 빛고을 유동(柳洞), 버들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품에서 포근했던 유년 시절, 방문을 열고 마루에 서면 탱자 울 너머로 무등산이 보였다. 무등산에 눈이 세 번 오면 시내에 첫눈이 온다는 말이 있어 무등산에 하얀 눈이 내린 아침이면, 누나는 일찍 일어나 '눈 왔다. 무등산에 눈 왔어.' 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 형제들은 우르르 마루로 나와 무등산을 바라보았다. 학창 시절 방학이 되어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무등산은 저 멀리서 어서 오라는 듯 두 팔을 벌려 어머니처럼 맞이해주었다.

지난날은 그 무엇에 쫓기면서 건성으로 보낸 철없는 시간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산 아래 살면서 무등을 잊고 지냈다. 돌아보면 어리석은 헛된 욕망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본연(本然)의 나로 돌아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에 눈을 뜬 것 같다.

무등은 석가모니가 히말라야 설산 보리수 아래에서 육 년 고행 끝에 얻은 깨달음이 무등정각(無等正覺)이라 해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나 내가 무등산이 성산(聖山)임을 안 것은 이순(耳順)을 넘어서였다. 승(僧)과 속(俗)을 넘어서서, 걸림이 없는 자유인으로 무애(無碍)의 삶을 살다 간 원효(元曉)를 알고 나서였다.

주봉인 천왕봉과 서석대와 의상봉을 마주 보고 서 있는 원효봉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무등의 능선을 그대로 닮았다. 원효봉 아래 원효사(元曉寺)는 내가 자주 찾는 곳인데, 오르는 길이 편안하면서 고즈넉해 사색에 젖게 한다. 달 밝은 밤이면 푸른 달빛에 어스름한 숲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이 가라앉으며 차분해진다. 이 길은 나를 명상으로 이끄는 담담(淡淡)한 심상(心想)의 길이다.

엊그제는 봄이 돋는다는 입춘(立春), 무등산에 봄눈이 내렸다. 눈을 맞으며 오른 무등, 천왕봉(天王峰)과 지왕봉(地王峰) 인왕봉 (人王峰) 그리고 서석대(瑞石臺)의 설경(雪景)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수정병풍이라 불리는 서석대의 산 철쭉에 핀 상고대와 눈꽃은 환상적이었다. 파란 하늘 아래 상고대는 크리스탈처럼 빛나고, 군락을 이룬 철쭉의 눈꽃은 하늘의 꽃인 양 황홀했다. 눈꽃 속에서 나의 가슴은 환희로 벅차올랐다.

눈에 쌓인 봉우리들이 파란 하늘에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무등산의 모습은 성스러우면서 장엄하다. 이 무등의 성스러운 빛은 무등을 딛고 무상(無常)을 넘어 어둠과 밝음을 초월한 빛이다. 속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빛이다. 화광동진은 노자(老子)에 나오는 말인데 '깊은 깨달음의 빛을 안으로 감추고, 범속함과 하나 된다.'는 뜻이다. 이는 깊은 깨달음에 이른 경지로, 자신의 지혜와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속에 겸허하게 묻혀 사는 거사(居士)의 모습이다. 이 보이지 않는 장엄하면서 성스러운 무등의 빛이 빛고을을 비추고 있다.

무등, 그대로의 의미는 때 묻지 않고 순박하여 걸림이 없는 자연 그대로 순진무구(純眞無垢)한 동심(童心)의 세계이다. 무등산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번뇌 망상까지도 사랑으로 감싸는 어버이와 같은 자애로운 성산이다.

약력

▲'한국수필' 천료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전남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작가회 감사
▲공저 : '나를 담는 그릇' 외 다수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